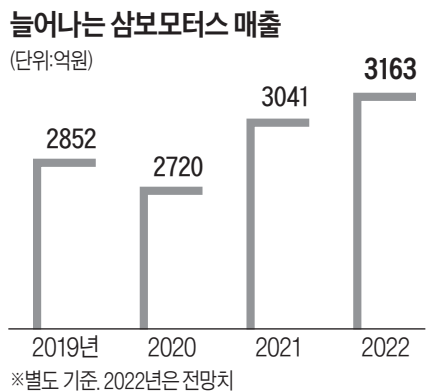


“미래차 부품으로獨 콘티넨탈 뛰어넘을 것”

서서 봐도 누워서 봐도 고화질 영화관처럼 즐기는 액정 스크린

히트 챔피언

코스닥시장 상장사 삼보모터스는 국내 자동차 자동변속기 부품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다. 미국과 독일, 중국 등에 사업장을 두고 현지 자동차 회사에 부품 공급하고 있다. 전자기 부품도 상용화하는 등 산업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이우경 삼보모터스 사장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세계적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을 뛰어넘는 글로벌 히트 챔피언이 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우경 삼보모터스 사장

韓 자동변속기 부품 85% 점유 GM 등 글로벌 기업에 공급

연구소 짓고 스마트팩토리 구축 소재다변화로 전기·수소차 공략

대구에 있는 삼보모터스는 1994년 국내 최초로 자동변속기 부품을 국산화한 기술 강소기업이다. 이후 자동차 자동변속기 구성 부품, 파이프류 제품 등 파이프류와 플레이트류를 제조해 국내외 완성차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해 닛산, 도요타, GM, 크라이슬러, 콘티넨탈 등 글로벌 기업들이다. 삼보모터스의 핵심 경쟁력은 ‘파인블랭킹’이라고 불리는 금형 기술이다. 블랭킹이란 편차 따위를 이용해 판금을 가공하는 공정이다. 일반적인 블랭킹 공정은 휘어짐 같은 불량이나 자주 발생하는 탓에 2차 기기 가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삼보모터스의 파인블랭킹은 제품 가공 부위에 가해지는 전단력(자르는 힘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제품 변형이 거의 발

생하지 않는다. 절단면이 깨끗한 데다 가공 정밀도 및 표면 조도 등이 우수하고 2차 가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정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다. 삼보모터스는 소재 다변화에도 공을 들였다. 엔진 및 연료 파이프 소재를 스틸에서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로 변경한 게 좋은 예다. 내연기관 부품에 쓰이던 이런 기술력은 경량화가 관건인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 사업에서도 고스란



이우경 삼보모터스 사장이 대구 세천공장의 스마트팩토리 설비를 설명하고 있다. 민경진기자

히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양산을 시작해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공급한 전기차 모터용 감속기는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대표적인 미래차 부품이다. 기존 내연기관 엔진 파이프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한 전기차용 모터 냉각 파이프는 지난해 하반기 북미에 출시된 GM의 전기 픽업트럭에 탑재됐다. 이 사장은 “2009년 인제 확보를 위해 서울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미래차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팩토리로 갖췄다. 내연기관 공정을 로봇팔이 움직이는 자동화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했고 공정 간 연결까지 무인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 반복 노동에 필요한 인력을 12분의 1로 줄이고, 고부가가치 작업에 재배치했다. 삼보모터스는 2013년 자동차 범퍼 기업 프리코, 2015년 독일 자동차 튜닝 전문 회사 칼슨, 2019년 일본 정밀기공업체에 이르기까지 등 글로벌 자동차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도 활발하게 펼쳐왔다. 삼보모터스를 포함한 전체 그룹사는 국내 6개, 해외 6개로 총 12개 법인다. 전체 그룹사의 생산 품목은 2만 종, 지난해 매출은 총 1조5101억원에 달한다. 최근 삼보모터스 주가는 전반기 중시 부진 탓에 올 들어 24%가량 하락한 43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사장은 부친 이재하 회장이 1977년 설립한 삼보모터스에 2010년 입사했다. 올 1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민경진 기자

으뜸종기

제이케이테크의 ‘보더 란-X(사진)’는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함께 지닌 ‘액정’을 활용해 개발한 필름 형태의 스크린이다. 빔프로젝터가 쓴 빛을 액정 층 내부에서 구현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도 초고화질(UHD)급의 선명한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액정은 고체의 결정이 갖는 규칙성과 액체의 성질인 유동성을 모두 지닌 물질인 ‘액체 결정’의 줄임말이다. 주로 LCD TV의 내부 자재로 사용된다. 제이케이테크는 TV 안의 액정을 외부로 꺼낸 액정 스크린 ‘보더 란-X’를 2020년 개발했다. 영화관의 ‘은막(銀幕)’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액정 스크린은 빔프로젝터에서 쏘는 빛이 액정 층 내부에 상이 맺혀 영상이 구현되는 까닭에 시야각이 180도로 넓은 게 특징이다.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한 보급형 프로젝트부터 고화질의 초단초점 빔프로젝터까지 다양한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다. 표면에는 하이D 필름을 적용해 내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제이케이테크 필름형 스크린 LCD TV 내부자재 활용 개발 어떤 각도서 봐도 고화질 유지

설치가 간편해 가정, 상업 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보더 란-X는 기존 벽에 평탄화 작업을 한 뒤 보강용 아크릴판을 부착해 2차 평탄화를 진행한다. 그 위에 보더 란-X 필름을 부착하면 시공이 끝난다. 스크린 크기로는 100인치, 120인치가 기본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 제이케이테크는 지난해 보더 란-X의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목표 금액의 1500%인 8000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100인치 크기 보더 란-X의 개당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 확인 기준 140만원이다. 2016년 설립된 제이케이테크는 독자 개발한 인크를 적용한 보아보드마카 주력 제품이다. 보아보드마카는 건조 후 필름 형태로 벗겨지는 인크로 미세가루가 날리지 않고 선명한 발색이 장점이다. 보더 란-X를 주력 상품으로 추가하면서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뚝 7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민경진기자

“친환경 수성 잉크로 日제품 대체”

대진화학, 포장재 잉크 개발
월 1000t 규모 양산 돌입

1971년 국내 최초로 수성 잉크를 개발한 중소기업이 일본 업체가 장악해온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경기 화성에 있는 대진화학은 최근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를 독자 개발해 수입 잉크 대체에 나섰다. 대진화학은 지난해 경기 화성에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를 월 1000t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나섰다. 대진화학은 식품 포장재뿐만 아니라 아직 유성 잉크가 사용되고 있는 곡류 및 인스턴트 식품 포장제 등 다양한 분야로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매출 30억원, 영업이익 1억원을 기록했다.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데다 독성 물질을 함유한 유성 잉크에 비해 가격이 비싼 탓에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친환경화이 2020년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는 과자 봉지 등 식품 포장재부터 쓰레기 봉투까지 모든 필름에 인쇄가 가능하다. 친환경화는 지난해 경기 화성에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를 월 1000t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나섰다. 대진화학은 식품 포장재뿐만 아니라 아직 유성 잉크가 사용되고 있는 곡류 및 인스턴트 식품 포장제 등 다양한 분야로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매출 30억원, 영업이익 1억원을 기록했다.

경기 화성에 있는 대진화학은 최근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를 독자 개발해 수입 잉크 대체에 나섰다. 대진화학은 지난해 경기 화성에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를 월 1000t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나섰다. 대진화학은 식품 포장재뿐만 아니라 아직 유성 잉크가 사용되고 있는 곡류 및 인스턴트 식품 포장제 등 다양한 분야로 친환경 수성 그라비아 잉크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매출 30억원, 영업이익 1억원을 기록했다.

이병찬 대진화학 대표(사진)는 “국내 최초 수성 잉크 개발로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 수성 잉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민경진기자

카트·트랙터...골프 모빌리티에 힘 주는 대동

국내 1위 농기계 기업인 대동의 자회사 대동모빌리티가 골프카트 등 골프장 운영 장비 제품군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5인승 신형카트 연내 출시 국내 첫 코스별 음성 안내 승용 잔디깎이도 판매 개시

대동모빌리티가 출시하는 5인승 신형 골프카트 ‘HG-200’(사진)은 안전성과 디자인, 관리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출발 및 내리막 등 코스별 맞춤형 음성 안내 기능을 국내 골프카트 브랜드로는 최초로 적용했다. 골프카트 전방에 2개의 초음파 센서를 채택해 사물 감지 및 충돌 방지 기능을 갖췄다.

대동모빌리티는 유럽의 시설관리장비(GCE)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승용 잔디깎이도 국내 골프장에 판매를 시작한다. 골프장에서 다용도로 활용되는 트랙터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골프장용 트랙터에는 기어 번식 없는 페달 전 추진 기능(HST)을 추가한다. 이밖에 대동모빌리티는 고객이 원하

경사로에선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도록 안전성도 높였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를 채택해 스마트폰으로 원격 관제 및 상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 열선 시트를 기본 적용하고 옵션에 따라 냉난방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대동모빌리티는 유럽의 시설관리장



대동모빌리티의 5인승 신형카트. 김진원기자

전국 CCTV 한번에 모니터링 에스원, 라이브메니저 출시

에스원은 전국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 보안 시스템, 근대 기기 등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에스원 라이브메니저’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라이브메니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한 CCTV 등 각종 보안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안 공백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 서비스다. 에스원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통신 대리점, 금융회사 등 전국 곳곳에 다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점별로 보안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일괄 점검하는 게 쉽지 않다”며 “라이브메니저는 본사에서 보안시스템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돕고, 지점별로 경비-해제 상태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관리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라이브메니저는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는 근대 관리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도 실시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주 대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 수는 지난해 7342개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김병근기자

부동산 빌딩 빌딩 상가 *급매 2층 꼬마빌딩* *서울(중)역세권 신축빌딩* 송파구 초역세권 사옥용빌딩 신축빌딩 10층 *양재동* 대박건물

◆ 법인설립
◆ 잔고증명
◆ 어음할인
◆ 담보대출

모방경제 금융컨설팅 예금조성 법안설립 잔고증명 법인증자

이시점·화물운송 전문 전국운송가능 ☎ 1811-6563

부동산 담보 전, 담, 임야, APT, 주택, 건물 02-765-3357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의 5년 만의 신작 《싱크 어게인》 모르는 것을 아는 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정을 의심하라!”

와트슨을 최연소 중신교수이자 도발적 경영사상가 애덤 그랜트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믿음과 지식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

- ✓ ‘다시 생각하기’는 새로운 통찰의 기술이다
- ✓ ‘다시 생각하기’는 소통과 이해의 기술이 된다
- ✓ ‘다시 생각하기’로 버릴 시점을 아는 것이 지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빌 얼런다 게이츠 강력 추천 전 세계 32개국 출간

모르는 것을 아는 힘 **싱크 어게인** 애덤 그랜트 지음 | 이경희 옮김 | 490쪽 | 19,800원 | 한국경제신문